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APIM) 활용

최경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An analyzing of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with early children: Using APIM

Kyung-II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 중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55쌍의 부부 자료를 활용해서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SPSS 21.0 version과 AMOS 21.0 version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존재하였다. 둘째,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 효과와 아내의 상대방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아내의 자기 효과는 남편의 상대방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영유아 자녀, 부부, 양육 스트레스, 결혼만족,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APIM)

Abstract The purpose is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parenting stress of husbands and wives with early children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To achieve purpose, this study uses data of 455 couples who have early children from 7th wav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was analyzed by SPSS 21.0 and AMOS 21.0 for the APIM. The results are as follow.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are effected by parenting stress of actor and partner.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husbands' parenting stress effect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similarly. And actor effect of wives' parenting stress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an partner effect. Finally, some suggestions related to alleviate parenting stress and develop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with early children were proposed.

Key Words : early children, husbands and wives,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PIM

1. 서론

결혼은 각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남녀 개인이 부부로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비혈연적

관계를 시작하는 의식이자 생활양상이다. 따라서 그동안 서로 다른 생활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생활을 하던 개인이 결혼을 하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지만, 기존의 생활양상과 다른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

*Corresponding Author : Kyung-II Choi(kicho@halla.ac.kr)

Received March 11,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15, 2019

Published May 28, 2019

를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의 성장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새로운 가족 규칙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결혼생활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래야만 부부 개인은 물론이고 자녀가 신체적, 정서적 혹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혼, 황혼이혼 혹은 줄혼 등으로 대표되는 탈결혼이다. 이들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연령대는 조금씩 다르지만 부부관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연령층의 부부가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것이며, 과거에는 숨기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불만족을 이혼으로 표출한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은 2016년에 10만 7천 3백건으로 집계되어서 수치로는 전년에 비해서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6년에 결혼한 약 28만 쌍 중 약 38.1%에 달하는 10만 쌍 이상이 이혼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

그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결혼 초기 부부의 높은 이혼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혼인·이혼 통계[1]에 따르면 40세 이전에 이혼한 남성은 전체 남성 이혼의 26%, 같은 조건에서 여자는 37.8%를 차지하였으며, 혼인 지속기간이 9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42.1%를 차지하였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율의 47.5%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 이혼부부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높은 이혼율을 추론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부가 어린 자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이나 가정생활 영위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최근 사회 문화,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한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다[2]. 따라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면서 의사결정이나 자녀양육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견대립이나 갈등에 직면하여 기능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혼을 손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혼을 부부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이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하고 심각하다[3]. 일차적으로 이혼자와 가족 구성원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 내지는 훼손되거나 아직 독립하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는 학교생활과

같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부모 양자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신뢰와 애정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하는 영유아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당장 가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4].

따라서 국가와 사회 단체들은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 결혼 전 예비부부 상담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에게 이혼숙려제를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대책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율을 낮추는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원인에 관련된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백인, 흑인 및 히스패닉 등으로 구성된 미국인 부부 60쌍의 결혼만족도를 파악한 연구[5]에 따르면 자녀 출산 이전에는 조사 대상자의 78%의 남편과 63%의 부인이 결혼생활에 만족하였으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시기에 접어들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73%의 남편과 50%의 부인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2년 미만인 부부 집단이 그 이상인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으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에 접어들면 만족도가 낮아진다고거나,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유사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6,7].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자녀 출산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가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혼까지 이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녀 양육을 베풀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부부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부부는 양육과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많은 문제들에 능숙하게 대처하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8]. 이를 일반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라고 칭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따분함, 신경질,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의 일상적 감정 혹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인 피로감과 경제적인 부담이 주는 어려움[9,10]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부모라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더 큰 갈등을 겪는다. 또한 결혼 초기에는 부부 간 낭만과 애정으로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보다 시가 혹은 처가와와의 갈등을 넘겨왔지만 양육 스트레스가 그동안 잠복해 있던 문제들을 표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결혼만족도를 저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들 [11-15]이 다수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주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아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고, 최근 들어서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16,17]이 일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자녀 양육과 그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는 남편이나 아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결혼만족도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편이나 아내 개인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상대방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물론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도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남편과 아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남편과 아내 상호 간에 교차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18]을 활용하여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기 효과는 남편 혹은 아내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남편 혹은 아내 자신이 느끼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상대방 효과는 남편 혹은 아내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아내 혹은 남편이 느끼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편과 아내 간에 존재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과 결혼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조사) 자료

중 경기도에 거주하며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남편과 아내 455쌍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기도는 이혼율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관련한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아버지 설문이 추가된 것 중에서 연구자에게 공개된 가장 최근의 자료여서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Chung[19]이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 척도화한 RKMS의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또는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부터 '매우 만족한다' 까지의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 $\alpha=.929$, 아내 $\alpha=.935$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20]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11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 $\alpha=.873$, 아내 $\alpha=.875$ 이었다.

2.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기술통계, paired t-test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인 남편과 아내가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χ^2 검증과 TLI, CFI 및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레스를 표준화하여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한 후 기본모형과의 차이를 통해서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에는 SPSS 21.0 version과 AMOS 21.0 version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남편과 아내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평균 연령은 남편이 약 39세였고, 아내는 약 36세였다. 학력은 남편과 아내 모두 대학교 졸업을 한 경우가 각 40%를 넘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 특성 중 월 평균 소득은 약 473만원이었으며, 가구원 수는 4명을 약간 넘어섰고, 결혼을 유지한 기간은 평균 약 121개월로 10년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는 남아인 경우가 여아인 경우보다 약간 많았으며, 자녀의 월령은 평균 약 74개월로 6세를 약간 상회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husband	wife
	min./max./mean/s.d or n(%)	
age(year)	30/53/39.45/3.93	28/49/36.97/3.61
over high school	109(24.3)	127(28.2)
over college	71(15.9)	107(23.7)
over university	206(46.1)	195(43.2)
over graduate school	61(13.6)	21(4.7)
house		
monthly income(won)	100/3,000/473.803/221.11	
family member(no)	2/9/4.26/.879	
length of marriage(month)	2/402/121.40/39.845	
offspring		
male	232(51.0)	
female	223(49.0)	
age(month)	72/79/74.82/1.323	

3.2 주요변수의 특성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남편이 5점 만점에서 평균 2.67점의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평균 2.58점의 수준에서 역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6.025, p < .001$)여서, 남편이 아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의 수준을 나타냈고, 아내는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7.461, p < .001$)여서, 남편이 아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에서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를 벗어난 변수는 없었다. 또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절대값 0.6이하였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이하,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husband	wife	t-test
parenting stress	mean(s.d)	2.67(.60)	2.58(.60)	6.025***
	min.	1.00	1.00	
	max.	4.00	4.73	
	skewness	.134	.203	
	kurtosis	-.084	.532	
marital satisfaction	mean(s.d)	3.44(.56)	3.21(.65)	7.461***
	min.	1.00	1.00	
	max.	4.00	4.00	
	skewness	-.748	-.789	
	kurtosis	.180	.91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1	1			
2	-.418**	1		
3	.325**	-.310**	1	
4	-.304**	.523**	-.413**	1

1 parenting stress of husband, 2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 3 parenting stress of wife, 4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3.3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대한 기본 모형에서 추정된 효과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등가제약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기본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림 1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a)와 상대방 효과(b1)이고, 그림 2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b)와 상대방 효과(a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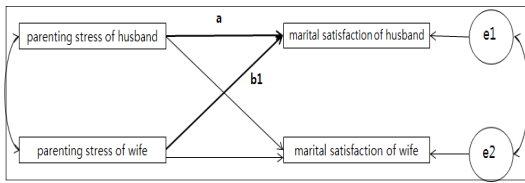


Fig. 1. Actor effect(a) and partner effect(b1) of hus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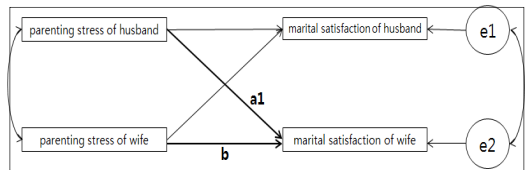


Fig. 2. Actor effect(b) and partner effect(a1) of wife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APIM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효과에서 남편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 자기 효과($a = -.361^{***}$)와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상대방 효과($a = -.231^{***}$)가 모두 존재하였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이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아내가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 모두로 인해서 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간에는 $\chi^2(1) = 1.24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 차이는 없었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남편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 자기 효과와 아내로 인한 상대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효과에서도 아내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자기 효과($a = -.388^{***}$)와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상대방 효과($a = -.160^{**}$)가 모두 존재하였다. 즉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이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이 인식하는 양육 스트레스 모두로 인해서 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간에는 $\chi^2(1) = 8.043$, $p < .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아내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 자기 효과가 상대방 효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효과에서 아내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방인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의 경우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모두를 가지며, 자신과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가 동일한 수준에서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내에게도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모두 존재하지만 자기 효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상대방 효과로 인한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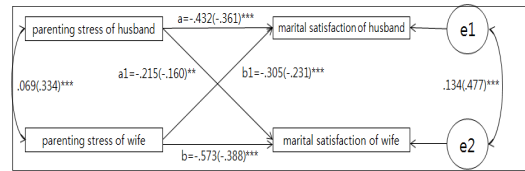


Fig. 3.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of husband and wife

Table 4. Difference of between models

model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basic	1229.232	399	.876	.894	.068	
equivalence constraint1 (a=b1)	1230.478	400	.877	.894	.068	$\chi^2(1) = 1.246$
equivalence constraint2 (b=a1)	1237.275	400	.876	.893	.068	$\chi^2(1) = 8.043$ $p < .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남편과 아내 중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455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가 동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도 아내 자신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동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13,14]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부부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서 이혼을 비롯한 부부 간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를 반드시 동시에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남편에게서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동일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 비해서 양육을 포함한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1], 남편의 이러한 성향이 연구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남편이 과거에 비해서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면서 그만큼 양육 스트레스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즉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지배하던 과거에는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는 아내로 인한 상대방 효과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와 사회 관습의 변화로 인해서 남편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인 자기 효과도 향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히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취약한 남편이 과거에 비해서 양육에 많이 참여하게 되므로 남편을 위한 심리정서적 혹은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내에게서는 아내 자신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의 자기 효과가 남편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상대방 효과보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스스로를 주 책임자로 인식하며, 실제로 아내는 어머니로서 남편과 다른 특성 혹은 더 많은 수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과거보다 양육에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처럼 아내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아내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부부 간에 협력을 통해서 아내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를 예방 혹은 해소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양육에 관한 역할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비단 아내를 위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남편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녀 양육은 이처럼 한 가정과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과 모부성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한 국가적 지원도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아내가 직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더 보편화되어야 하며, 휴직 후 복귀했을 때 차별받지 않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남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미있는 시도이지만 아직까지 남편의 육아휴직은 직장 문화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남편과 아내가 필요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허용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육아휴직제가 보편화되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육 스트레스를 야기할 상황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결국 부모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위한 시간적 배려와 함께 양육을 위한 기술, 지식 및 자신감을 배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직장을 둔 부부에게는 물론이고 전업주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는 양육을 위한 자원이 인터넷 정보나 이웃 주민 혹은 원가족의 부모님 정도로 국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자원이 당장의 양육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부모가 향후 직장에 복귀한 후나 전업 양육자가 새로운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에는 활용성에 제약이 크다. 그렇다면 육아에 정통한 충분한 자원을 갖춘 영유아 보육기관과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최근 그 필요성이 증대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에도 아이 돌보미 제도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부부가 이러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로부터 양육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양육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히 결혼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연구 대상을 경기도 거주자로 한정했다는 점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차후 연구는 이혼율이 높은 지역 혹은 낮은 지역도 조사하면 상호 간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최근의 이혼은 중장년은 물론이고 노년에서도 많이 발생하므로 각 연령층에 맞는 다른 특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의 변화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차후에는 다년간의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하면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현상이 변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7).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 2016*. Statistics Korea.

[2] J. H. Oh.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2), 509-532. DOI: 10.22143/HSS21.7.2.24

[3] C. Osborne & S. McLanahan. (2007). Partnership Instability and Chil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4), 1065-1083. DOI: 10.1111/j.1741-3737.2007.00431.x

[4] S. Y. Park. (2009). *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Child Social Competence*.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5] A. Mackey & A. O'Brien. (1999). Adaptation in Lasting Marriages. *Families in Society*, 80(6), 587-596.

[6] S. A. Park. (2012). *Marital Satisfaction on Ego-states and Love-types of Married men and women*. Master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Jeonju.

[7] T. S. Lee.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Love Style of the Married peopl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8] D. Sinai & L. Tikotzky. (2012). Infant Sleep Parental Sleep and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Mothers on Maternity Leave and in Families of Working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5(2), 179-186. DOI: 10.1016/j.infbeh.2012.01.006

[9] H. K. Kang & B. H. Cho. (1999). Dual-Career Parenting Stress: Effects of Mother's Values and Support Syst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2), 41-55.

[10] R. Abidin.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DOI: 10.1207/s15374424jccp1904_1

[11] J. H. Keum & D. S. Kim. (2014).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2), 141-150. DOI : 10.6115/fer.2014.52.2.141

[12] H. M. Kim & J. Y. Park. (2013). Study of Variable Factors Affecting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Focused on the

Related Variable of Myself and Partn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3), 125-140. DOI : 10.7466/JKHMA.2013.31.3.125

[13] S. H. Cho & S. Y. Park. (2012). Marital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3), 505-524.

[14] D. Carr, V. Freedman, J. Cornman & N. Schwarz. (2014). Happy marriage, happy life? Marital 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5), 930-948. DOI: 10.1111/jomf.12133

[15] R. Chapin, J. Chapin & G. Sattler. (2001). The Relationship of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Certain Marital Satisfaction Factors to Marital Distress. *Family Journal*, 9(3), 259-265. DOI: 10.1177/1066480701093004

[16] M. S. Kim & B. D. Kim. (2016).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Stress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8(4), 21-38.

[17] E. M. Yeon & H. S. Choi, J. A. Kim & J. A. Kim. (2014). Relationships among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and Engagements Regard to Their Psychological Featur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6, 51-78.

[18] L. Cook & A. Kenny.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DOI: 10.1080/01650250444000405

[19] H. S. Chung.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DOI: 10.2466/PR.95.7.1015-1022

[20] K. H. Kim & H. K. Kang.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41-150.

[21] M. Patricia, E. Schacht, M. Cummings & D. Patrick (2009) Fathering in Family Context and Child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6), 790-797 DOI: 10.1037/a0016741

최 경 일(Choi, Kyung Il)

【장학】



- 1999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8월 ~ 현재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
- E-Mail : kichoi@halla.ac.kr